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제공일	2020.6.3.(수)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연구원 김태한 (051-797-4783, thkim@kmi.re.kr)•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연구원 김기수 (051-797-4778, ivor0824@kmi.re.kr)•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전문연구원 최석우 (051-797-4777, schoi@kmi.re.kr)	
배포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84)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KMI, 「2020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KMI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인식과 수요에 기반한 연구·정책·홍보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 2020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1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금년 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사 방법을 온라인 조사로 변경함

<2020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추출 방법	성별, 연령, 지역 인구비례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1.79%Point
표본 크기	3,000명(응답률 39.4%)	조사 기관 및 기간	리서치 앤 리서치 2020.4.11.~2020.4.20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SPSS 및 R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표분석, T-test, F검정 등을 실시

□ (해양수산 종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해양수산 부문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해양은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 '세계무역 네트워크 통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76.8%가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국민들은 '해양수산'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다/바닷가'(27.2%), '수산물/먹거리'(21.7%), '배/선박'(13.7%) 순으로 꼽았다. 또한 국민들은 해양수산 부문에서 '수산물 요리, 맛 집'(46.8%)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년 대비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분야로는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수준', 열세인 분야로는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해양환경 생태계 보호'(44.5%)와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29.2%) 순으로 응답했다.

□ (해양 분야)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67.6%이며, 매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해안가의 문제점을 점수로 평가한 결과 '폐어망, 생활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가 78.4점(100점 만점, 평균)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해양오염 심각성 국민인식 전환/제고'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해양 관광과 관련해서 여행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한 횟수는 연간 '2~3회'가 36.9%, 여행 기간은 '2박 3일'이 37.6%로 가장 많았다. 바닷가 여행 시 20~30대는 '해수욕'을, 50~60대는 '해양경관 감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닷가 여행 시 불편사항은 3년 연속 '비싼 요금'(41.2%)과 '교통 접근성 불편'(23.8%)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관광 편의시설 부족'(10.8%),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10.5%), '주변환경 청결 미흡'(6.6%) 순으로 나타났다.

□ (수산 분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고등어, 김, 갈치, 새우 순이었으며, 광어, 굴, 전복, 미역, 연어 등도 상위에 랭크되었다.

- 국민들은 국산 수산물이 수입 수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도는 52.9%로 작년대비 4%p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수입산 수산물 검사 검역 강화'가 42.4%의 응답률로 1위로 조사되었다.
-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3.0%로 전년 대비 8.4%포인트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36.7%)이 여성(29.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38.1%)가 가장 높고 20대(29.3%)는 가장 낮았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텃세'(25.6%),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24.7%), '귀어귀촌의 정보 부족'(18.9%) 등은 귀어·귀촌 시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 (해운·물류 분야) 국민들은 향후 '해운산업의 발전가능성'을 58.1%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현재 '해운산업의 경기현황'은 34.8%로 낮았다.

- 해운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각각 73.3%, 74.7%를 차지하였으며,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30.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연안 여객선을 1회 이상 이용했다는 응답은 41.8%로 나타났으며, 연안여객선 안전성 평가에서는 '안전' 응답이 35.3% '보통' 47.3%, '위험' 17.4%로 평가됐다.
- 한편 해운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는 '해운 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항만 분야) 항만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무역항'(43.5%)과 '어항'(29.8%)으로 떠올렸다.

-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긍정'(54.1%)이 '부정'(5.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항만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된 이유였다.

- 노후화된 항만의 재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항만산업 시설로 재개발’(44.7%)하거나 ‘친수공간,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로 재개발’(28.0%)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향후 항만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 중심항’(34.1%), ‘복합기능 중심항’(29.4%), ‘해양레저/관광 중심항’(15.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종합정책연구본부 경제산업·통계분석실 김태한 연구원(051-797-4783, thkim@kmi.re.kr)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국민의 79.3%, ‘해양수산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

■ 해양수산 전 분야 관련 전반적 평가 결과, 해양수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국토와 바다 수호’, ‘지역발전 기여’ 등 대부분 항목이 높은 평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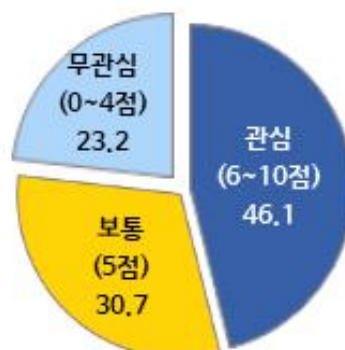
- ‘해양수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항목은 ‘동의(6~10점)’가 79.3%, ‘보통(5점)’ 15.8%, ‘반대(0~4점)’ 4.9%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투영함
- 100점 환산 평균점수 기준 해양수산은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 ‘국토와 바다를 지키’, ‘세계 무역 네트워크 통합’, ‘식량안보에 기여’, ‘세계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지역발전에 기여’,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순으로 대부분 70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함

■ 국민의 72.4%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 주요 관심 항목은 ‘수산물 요리, 맛집’, ‘수산물 가격’, ‘수산물 식품안전’, ‘해양 관광문화’, ‘해양자원’ 순

- 평소 해양수산 분야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 있음’이 46.1%, ‘보통’ 30.7%, ‘관심 없음’ 23.2%로 대체로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 분야 중 관심 항목으로는 ‘수산물 요리, 맛집’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산물 가격’이 3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 결과는 작년과 동일
- 그 다음으로 ‘수산물 식품안전’ 32.6%, ‘해양 관광문화’ 32.4%, ‘해양자원’ 26.8%,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25.5%, ‘해양레저·스포츠’ 24.0%, ‘수산물 생산/유통’ 2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해양수산 분야 전반적 평가와 관심도

(단위:%, N=3,000)



해양수산을 연상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다/바닷가’

■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다/바닷가/해변’, 두 번째는 ‘수산물/해산물’, 세 번째는 ‘배/선박’

- 주관식 문항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수집한 결과, ‘바다/바닷가/해변’ 응답자의 27.2%, ‘수산물/먹거리’ 21.7%, ‘배/선박’ 13.7% 순으로 높게 언급됨
- 이 외에, 생선/물고기(12.3%), 항구/부두(6.4%), 수상레저스포츠(5.9%), 관광/관광지/관광업(5.6%), 어촌(4.3%), 양식업(4.2%), 항만(4.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언급됨

그림 2. 해양수산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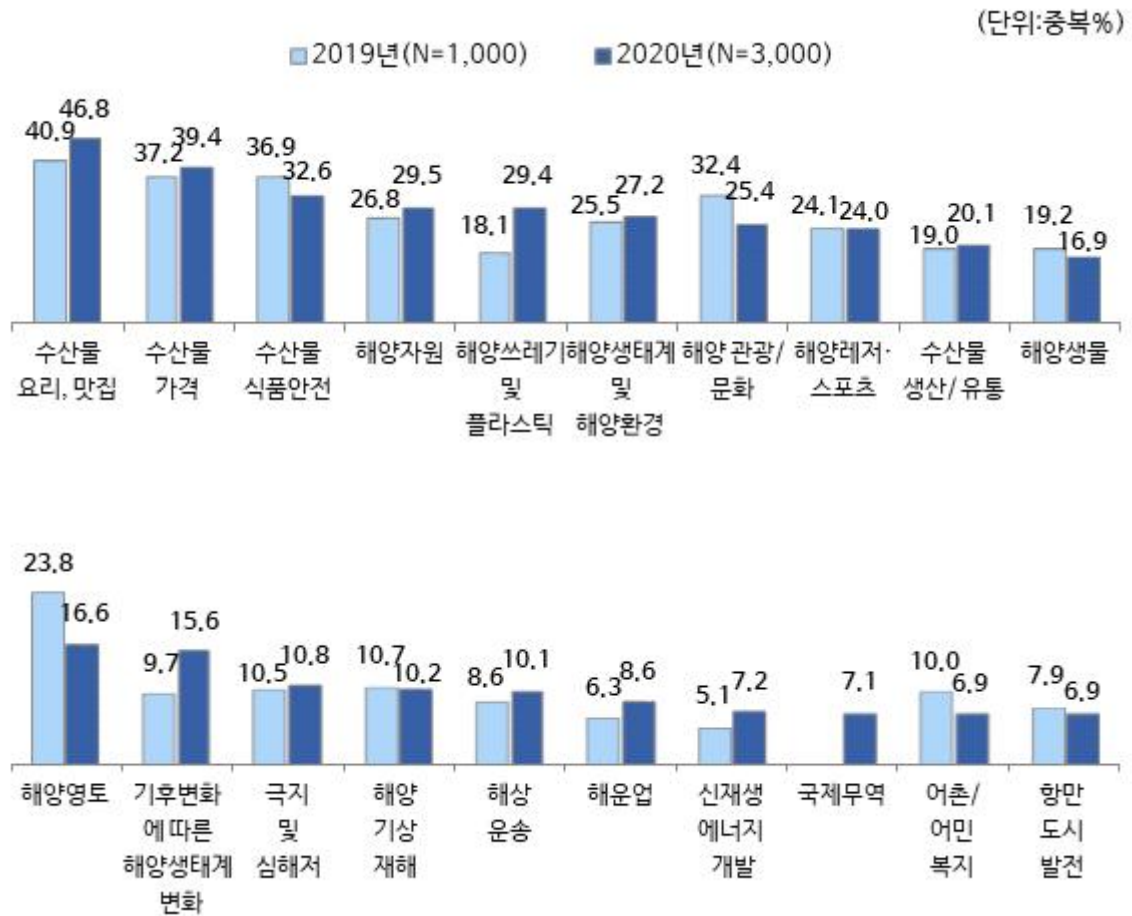


평소 해양수산의 주 관심은 ‘수산물 요리, 맛집’

■ 해양수산 분야 중 관심 항목을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수산물 요리, 맛집’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수산물 가격’ 39.4%, ‘수산물 식품안전’ 32.6%, ‘해양자원’ 29.5%,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29.4%, ‘해양 생태계 및 해양환경’이 27.2%, ‘해양 관광/문화’ 25.4%, ‘해양레저·스포츠’ 24.0%, ‘수산물 생산/유통’ 20.1%, ‘해양생물’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산물 요리, 맛집, 수산물 가격, 수산물 식품안전 3개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응답은 10.3%p 가량 크게 증가함.

그림 3. 해양수산 분야 중 관심 항목



‘수산물 먹거리 풍부’, 우수, ‘해양 생물종 보호’ 열세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해 선진국과 비교 평가한 결과 우수 분야는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수준’

- 2019년과 다르게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수준’(44.6%)이 1위를 차지
- 지난해 1위였던 수산물 먹거리 다양성(43.7%)은 2위로 밀렸으며, 뒤이어 ‘수산식품 안전 확보수준’ 32.9%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 분야 선진국 대비 열세 분야는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수준’

- 2019년에 이어 ‘해양 생물종 보호’(33.7%)가 가장 열세인 분야로 꼽혔으며, ‘해양 환경/생태계 보호’(29.5%),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수준’(27.5%)로 순으로 나타남

향후 10년 내 성장이 기대되는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자원’

■ 해양수산 분야 중 향후 10년 내 크게 성장하거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해양자원’,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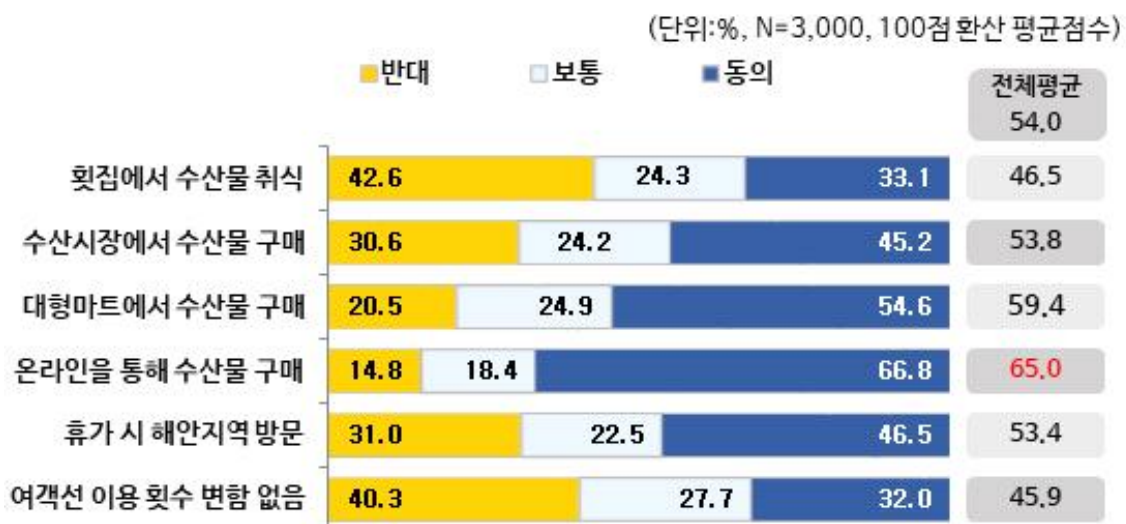
- ‘해양자원’ 36.0%,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30.0%,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25.4%, ‘해양관광/문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22.5%, ‘해양레저스포츠’ 22.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의 경우 2019년(17.6%)에서 2020년 12.4%p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해양쓰레기,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시장의 위축

■ 횡집에서 수산물 취식은 줄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구매 형태가 증가

- 코로나19사태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을 통해 수산물을 구매한다’가 6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을 구매한다’가 59.4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휴가시 해안지역 방문의사 53.4점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 코로나19 사태로 미치는 영향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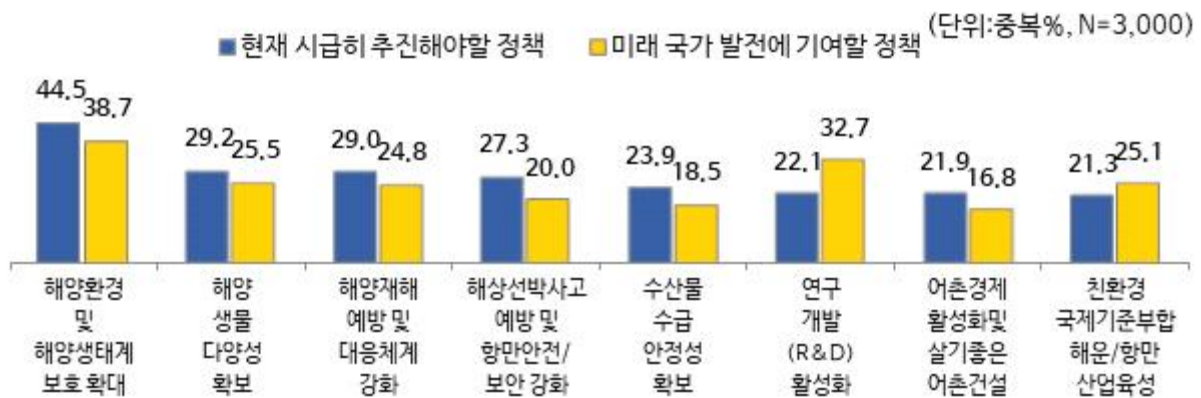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 정책 관련 현재 시급성과 미래 기여도 평가 결과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 환경/생태계 보호’ 44.5%, ‘해양생물의 다양성 확보’ 29.2%, ‘해양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9.0%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 분야 미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책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 미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책은 ‘해양환경/생태계 보호’ 38.7%, ‘연구개발 활성화’ 32.7%,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및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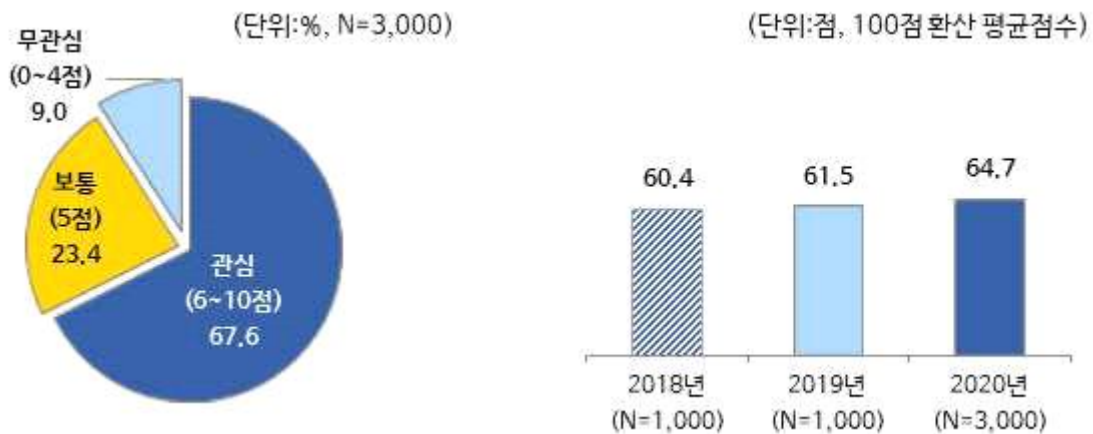
해양 분야

평소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은 67.6%로 높은 편

■ 해양 환경 관심도는 2018년 60.4점, 2019년 61.5점, 2020년 64.7점으로 점차 상승

- 평소 해양 환경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 있음’(관심도 6~10점) 응답은 67.6%, ‘보통’(관심도 5점) 23.4%, ‘관심 없음’(관심도 0~4점) 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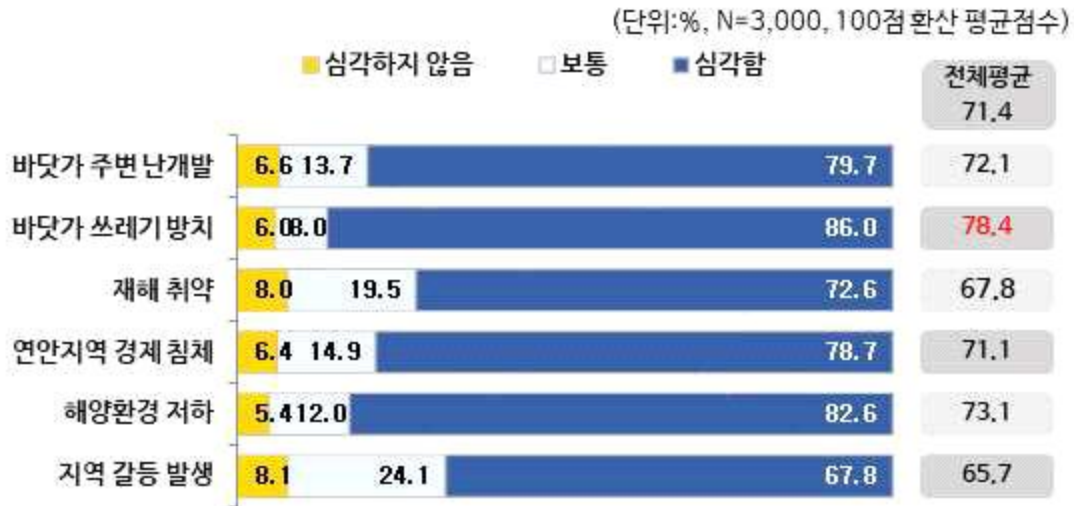
그림 6. 평소 해양 환경 관심도



■ 해안가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

- 바닷가 문제점 항목별 심각도를 살펴본 결과,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 항목 심각성이 7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해안 감소, 수질 악화 등 해양환경 저하’ 항목 심각성이 73.1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심각성 점수가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바닷가 쓰레기 방치 항목은 여전히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그림 7. 해안가 문제점 항목별 심각도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오염 심각성 국민인식 전환/제고’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아

- 그 다음으로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 26.1%,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12.1%, 과학 및 환경 보호 기술분야 투자확대 5.4% 순으로 나타남
- ‘해양오염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30%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아짐

바다여행 목적 방문 횟수는 연간 2~3회, 2박 3일 여행 선호

■ 여행목적으로 바다를 방문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2~3회’라는 응답이 총 36.9%, ‘0회’ 응답은 21.6%

- ‘2~3회’ 응답의 경우,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회’ 응답의 경우 50대(19.2%), 강원/제주 (24.4%), 무직/기타(40.3%), 소득 200만원 이하(4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바다에 머무는 기간은 ‘2박~3박’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박 2일’은 33.0%로 2위

- ‘2박~3박’이라는 응답은 서울(48.2%), 소득수준 701~1,000만원(44.6%), 1,001만원 이상(50.2%) 등에서 특히 높고, ‘1박 2일’이라는 응답은 50대(3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8. 여행목적 바다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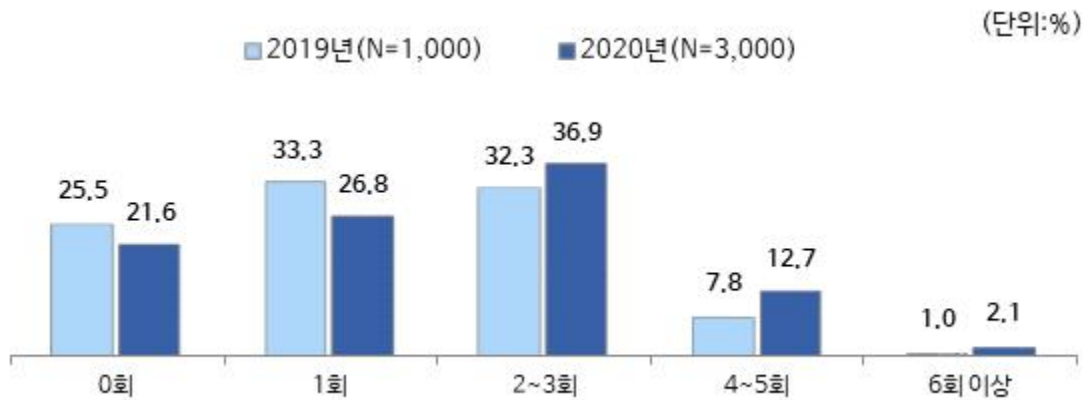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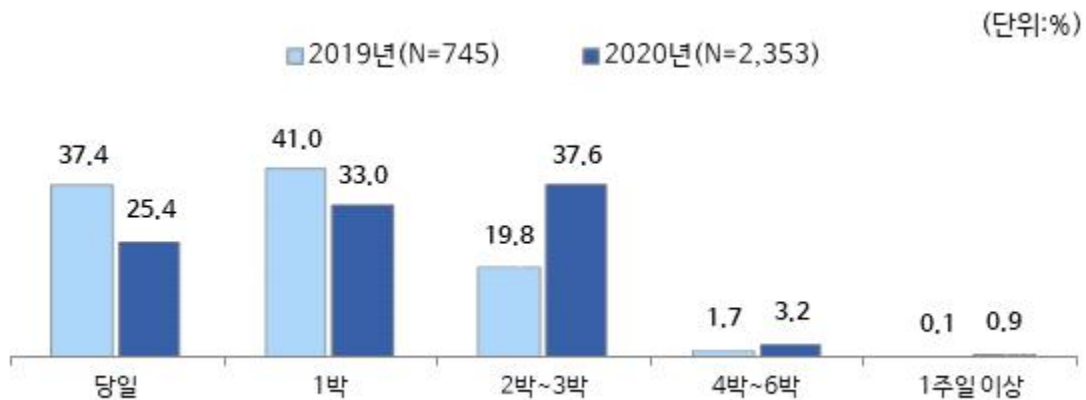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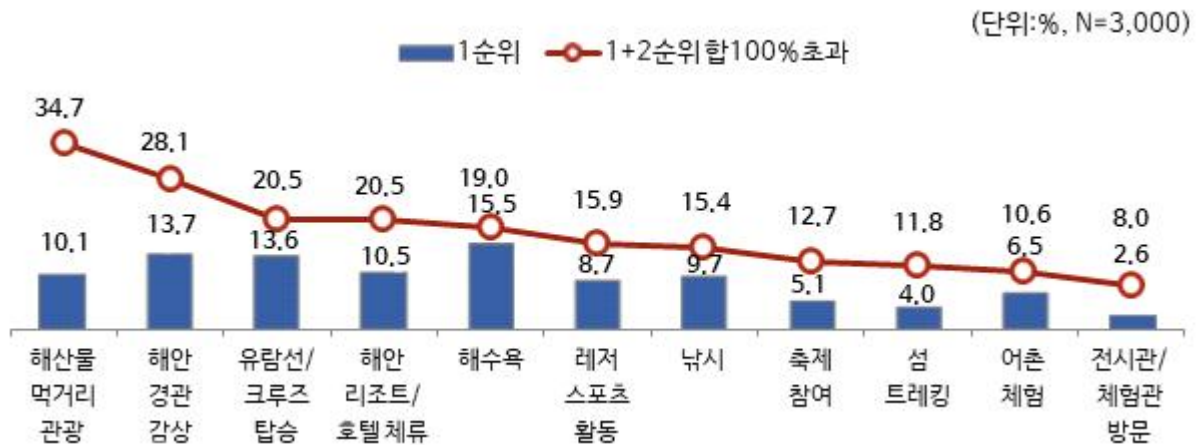
그림 9. 바다에 머무는 기간



■ 바다 여행 시 20~30대는 ‘해수욕’, 50~60대는 ‘해양경관 감상’ 선호

- 바다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수욕(15.5%), 해양경관 감상(13.7%)이 1,2위를 차지
- 그 다음으로 유람선 크루즈 탑승(13.6%), 해안 리조트/호텔체류(10.5%), 해산물 먹거리 관광(10.1%), 낚시(9.7%) 순으로 나타남
- ‘해양경관 감상’은 50대와 60대 각각 31.1%, 32.6%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해수욕’은 20대와 30대 각각 26.3%, 25.9%로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해산물 먹거리 관광’이 2.0%p 소폭 증가함

그림 10. 해안가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



■ 바닷가 여행 시 불편사항에 대해선 ‘비싼 요금(바가지 요금 등)’이 가장 높은 41.2%를 기록

- 그 다음으로, ‘교통 접근성 불편’ 31.1%,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26.6%, ‘관광 편의시설 부족’ 26.3%, ‘주변환경 청결 미흡’ 22.6%, ‘불친절’ 11.9%, ‘관광정보 확보의 어려움’ 9.2%, ‘관광활동에 따른 안전성 우려’ 7.7%, ‘차량/기기 대여 부족’ 2.8%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중복응답 1+2순위 기준 ‘비싼 요금(바가지 등)’은 2018년(63.9%), 2019년(60.6%), 2020년(59.2%)로 매년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불만 사항으로 표출됨

그림 11. 해안 관광시 불편사항



■ 해양관광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29.0%를 기록

- 그 다음으로, ‘국내관광 시장의 육성’ 25.4%, ‘해양 친수문화 확산’ 20.9%, ‘해양 레저산업발전’ 13.3%, ‘도시/어촌 교류 촉진’ 11.4% 순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2019년 28.6%, 2020년 29.0%로 0.4%p 증가해 1위로 나타남

그림 12.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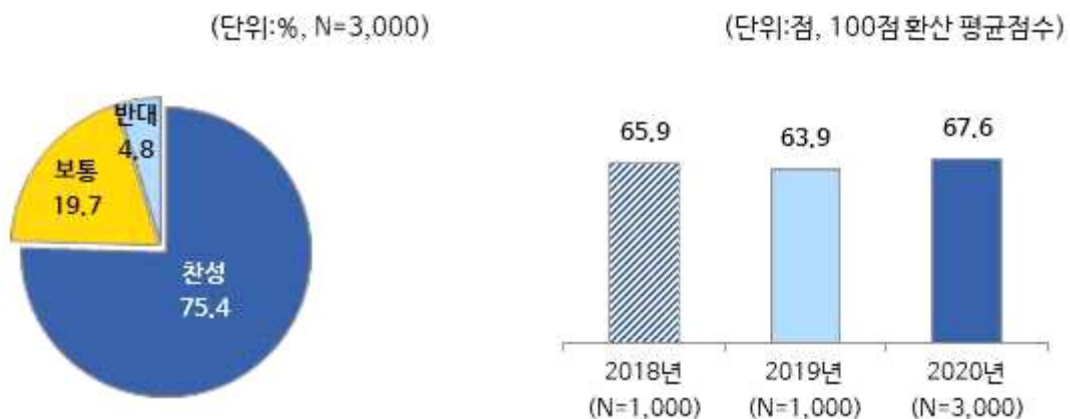


해양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추가에는 75.4%가 긍정적

■ 해양 영토 수호,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필요한 국가예산 추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예산 추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75.4%

- 해양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예산 추가 안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예산추가에 대해 ‘찬성’ 75.4%, ‘보통’ 19.7%, ‘반대’ 4.8%로 나타남
- 찬성의견은 2019년 68.6%에서 6.8%p 상승하였으며, 국민 대다수는 해양 공익의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추가에 대체로 긍정적임

그림 13. 해양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 관련 의견



향후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해양환경’

■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해양환경’으로 국민 52.6%가 선택

- 다음으로 ‘해양 과학기술’ 18.4%, ‘연안해양 공간관리’ 12.7%, ‘해양관광’ 7.4%, ‘해양영토’ 6.9%, ‘극지분야’ 1.8% 순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야는 청정한 수질 관리,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해양오염 방지 및 정화기술, 연안해양 공간관리 분야는 보존/이용 조정체계, 해양관광 분야는 해양 생태 관광, 해양영토 분야는 독도, 극지 분야는 기후변화와 해빙 연구로 나타남

그림 14.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그림 15-1. 해양환경 분야

그림 15-2. 해양과학기술 분야

(단위:%, N=1,577)

(단위:%, N=553)



그림 15-3. 연안/해양공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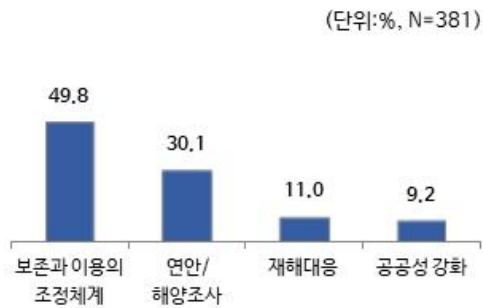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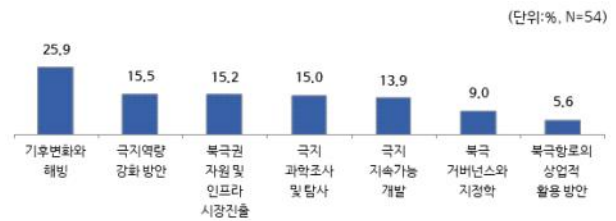
그림 15-4. 해양관광 분야



그림 15-5. 해양영토 분야



그림 15-6. 극지 분야



수산 분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고등어’, ‘김’ 순

■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살펴본 결과, 국민 간식 ‘오징어’ 15.0%, 국민생선 ‘고등어’ 12.4%, ‘김’ 11.4%

- 2019년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로 국민생선 고등어가 꼽혔으나, 2020년에는 최근 귀해진 오징어가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로 순서가 뒤바뀜
-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살펴본 결과, ‘오징어’라는 응답이 460번(15.0%)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어’라는 응답이 372번(12.4%) 나타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김’ 11.4%, ‘갈치’ 7.7%, ‘새우’ 7.4%, ‘광어’ 6.3% 등의 순임

그림 16. 선호하는 수산물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는 절반 이상이 '가정'

■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응답이 56.9%로 과반수 이상 차지

- 다음으로 ‘Hits’ 19.6%, ‘일식집’ 13.2%, ‘배달을 통해’ 4.0% 순으로 나타남
- ‘가정’이라는 응답은 전라권(60.0%), 주부(70.4%) 등에서 특히 높고, ‘Hits’이라는 응답은 부산/경남/울산(2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7.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



수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 수산물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 응답이 53.0% 차지, ‘전통시장’은 21.8%,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물’ 8.9%, ‘동네 소형마트/가게’ 5.1%

- ‘대형마트’라는 응답은 인천/경기(59.0%), 소득수준 701~1000만원(60.1%), 1001만원 이상(63.7%) 등에서 특히 높고, ‘전통시장’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27.0%), 전라권(33.4%), 부산/경남/울산(31.0%), 소득수준 201~300만원(2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형마트 이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시장 이용률이 높았음

그림 18. 수산물 구입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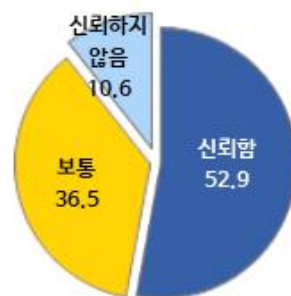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52.9%'로 작년대비 4%p 증가

■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함' 응답이 52.9%, '보통' 36.5%, '신뢰하지 않음' 10.6%

-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도 평균은 2020년 61.0점, 2019년 58.5점으로 2.5점 상승함.

그림 19.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정도

(단위:%,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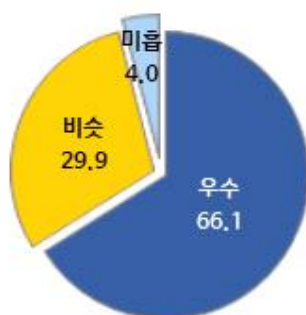
'국산 수산물'이 '수입 수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

■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품질 비교 살펴본 결과, '국산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66.1%로 전년 대비 13.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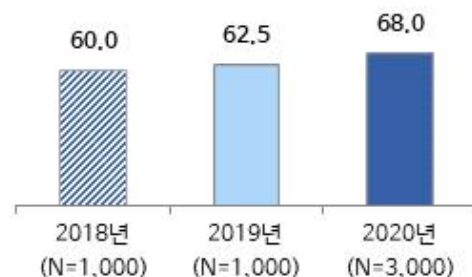
- 작년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국산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편임.

그림 20.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품질 비교

(단위:%, N=3,000)



(단위:점, 100점 환산 평균점수)



■ 외국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018년 ‘31.3%’, 2019년 35.5%, 2020년 38.3%로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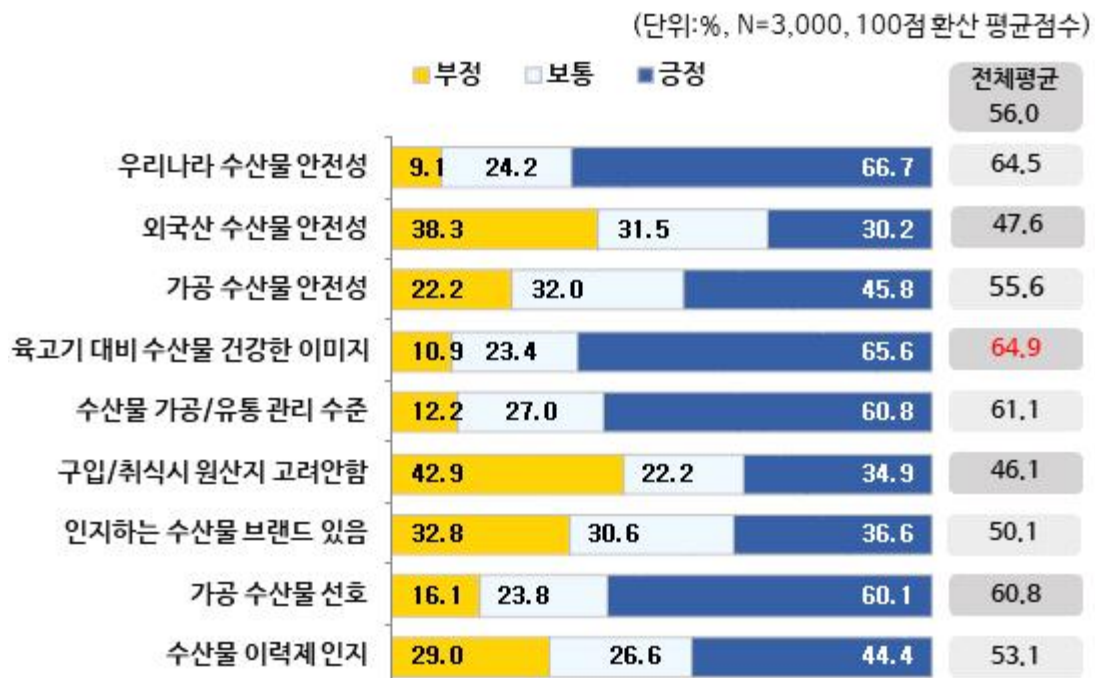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20대(39.6%), 30대(38.8%)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산물 관련 전반적인 평가

■ 수산물 관련 의견을 살펴본 결과, ‘수산물은 육고기 대비 건강한 음식이다’ 항목이 6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하다’ 항목이 64.5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항목 전체 평균은 2020년 56.0점, 2019년 58.9점으로 작년대비 2.9점 감소함.

그림 21. 수산물 관련 전반적인 평가



수산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

■ 수산업·어촌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44.2%

- 그 다음으로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보전’ 28.4%,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 12.0%, ‘어촌체험 관광 등 휴식레저 공간 제공’ 7.2%, ‘연안 어촌 지역 사회의 유지 발전’ 4.5%, ‘어민 복지 및 소득 증대’ 2.0%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1+2순위 기준, ‘국민 먹거리로서의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이 60.0%,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보전’ 55.7% 순으로 2019년과 순위가 뒤바뀜
-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환경관리 및 수산 자원 보존 2개의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어민 복지 및 소득증대는 1.9점 상승하였음

그림 22. 수산업, 어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수입산 수산물 검사 검역 강화’가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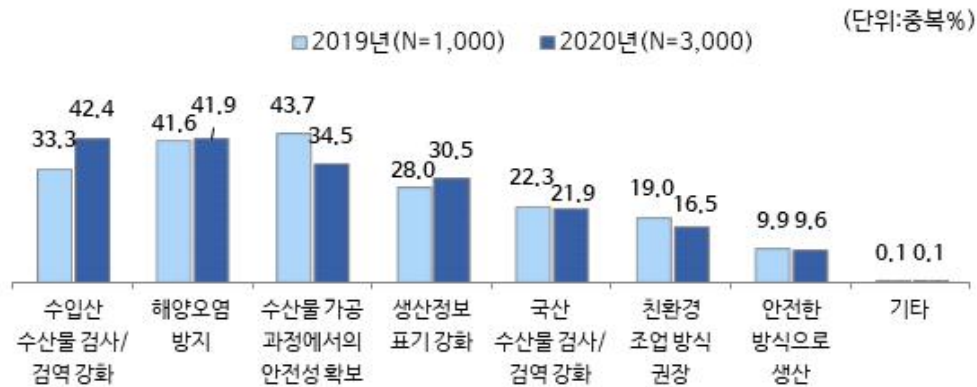
■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라는 응답이 42.4%로 1순위

- 다음으로, ‘해양 오염 방지’ 41.9%, ‘수산물 가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34.5%, ‘수산물 이력제 등 생산 정보 표기 강화’ 30.5%, ‘국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 21.9%, ‘친환경 조업 방식 권장’ 16.5%, ‘양식확대 등 안전한 방식으로 생산’ 9.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에 대해서는 2019년 대비 9.1%p 상승, 수산물 이력제 등 생

산 정보 표기 강화에 대해서는 2.5%p 상승하였으며, 그 반대로 국내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9.2%p 감소

-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수산물 가공과정의 위생상태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및 수산물 이력제 생산 정보표기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그림 23. 국산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시급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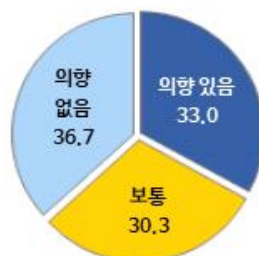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

■ 귀어·귀촌 의향을 살펴본 결과, 귀어·귀촌 의향 ‘있음’ 응답이 33.0%로 작년 대비 증가

- 2020년 귀어·귀촌 의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6.7%)이 여성(29.3%) 대비 7.4%p 높게 나타났고, 50대(38.1%), 전라권(39.8%)과 자영업(41.5%) 등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의향 없음’ 응답은 여성(41.3%)이 남성(32.1%) 대비 9.2%p 높게 나타났으며, 20대(44.5%) 서울, 충청권이 각각 3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

(단위:%, N=3,000)



■ 귀어·귀촌 하려는 이유는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란 응답이 가장 높은 66.8%

- ‘깨끗한 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60대(74.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30대(34.8%), 40대(33.5%) 등에서 높게 나타남
- ‘도시생활이 싫어서’ 23.0%, ‘어업, 관광업 등 해양 관련한 일에 종사하려고’ 20.2%,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15.0%, ‘요양 등 병 치료를 위해’ 7.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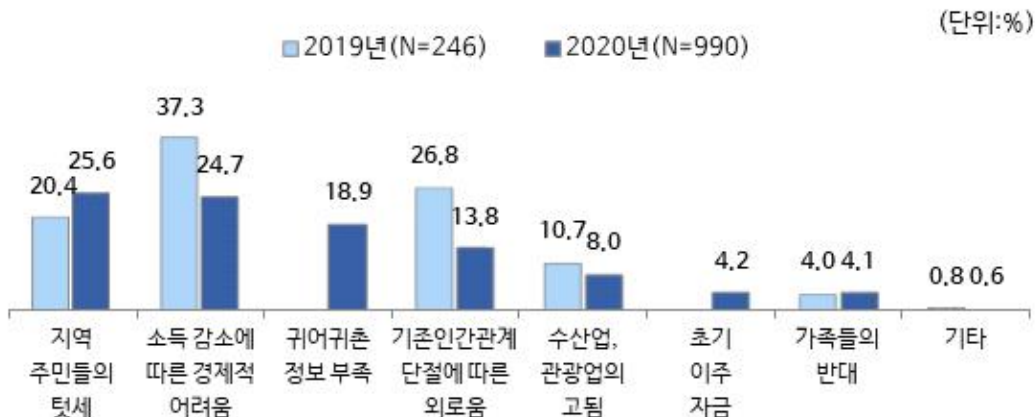
그림 25. 귀어·귀촌 하려는 이유



■ 귀어·귀촌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텃세’가 26.2%

- 그 다음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24.7%, ‘귀어귀촌 정보부족’ 18.9%, ‘기존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 13.8%, ‘수산업, 관광업의 고됨’ 8.0%, ‘초기 이주 자금’ 4.2%, ‘가족들의 반대’ 4.1% 순으로 나타남
- 지역 사회 차원에서 귀어귀촌 의향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기존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 문제 해결을 도울 필요가 있음

그림 26. 귀어·귀촌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수산식품산업’

■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수산식품산업’이 가장 높은 39.9%

- 그 다음으로 ‘수산 자원’ 25.5%, ‘양식업’ 15.0%, ‘FTA 등 통상 현안 대응’ 6.3%, ‘잡는 어업’ 5.0%, ‘국제 수산’ 4.5%, ‘수산물 수급’ 3.6% 순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산식품산업 분야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자원 분야는 불법조업 단속 강화, 양식업 분야는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 FTA 등 통상 현안 대응 분야는 국내생산 어업인 보호, 잡는 어업 분야는 어선어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 국제 수산 분야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수산물 수급 분야는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나타남

그림 27.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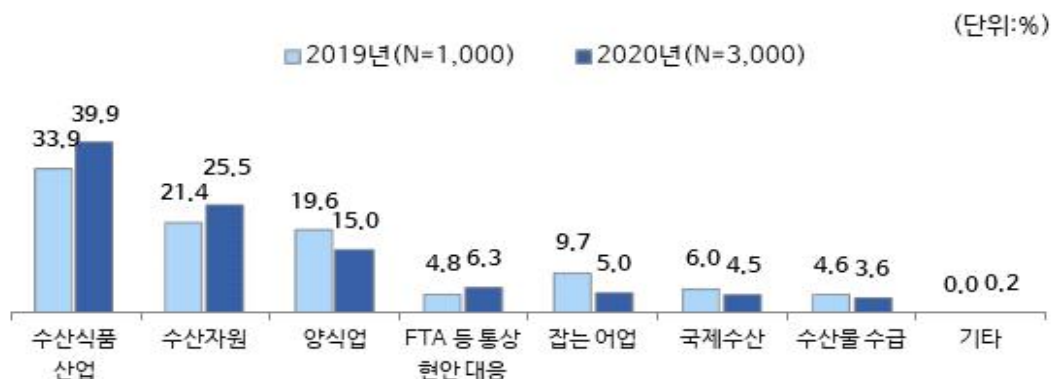


그림 27-1. 수산식품산업 분야

그림 27-2. 수산자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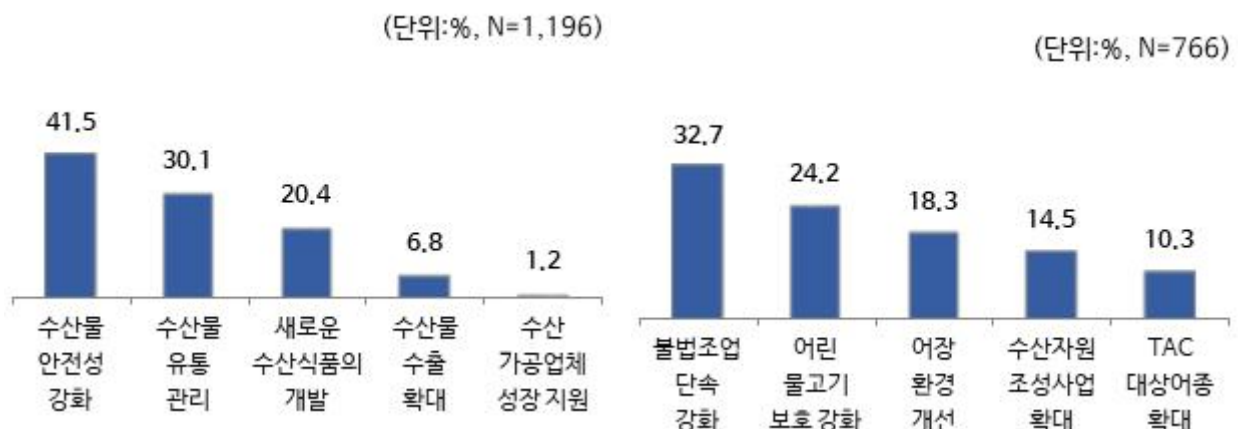


그림 27-3. 양식산업 분야



그림 27-4. 통상 현안 대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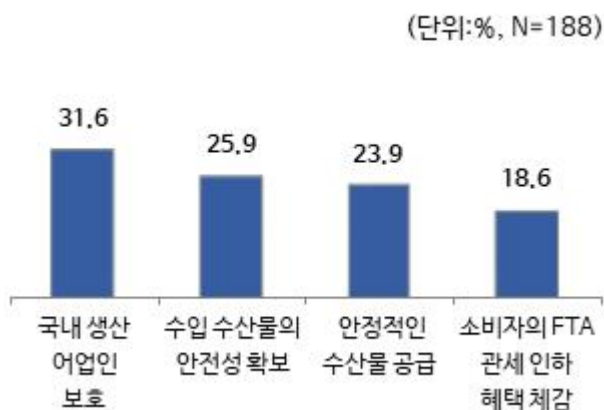


그림 27-5. 잡는 어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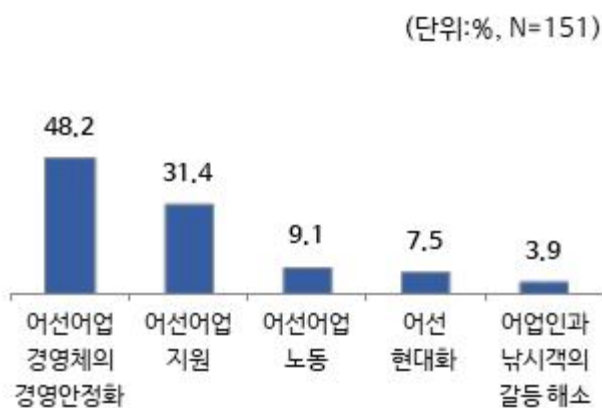


그림 27-6. 국제 수산 분야



그림 27-7. 수산물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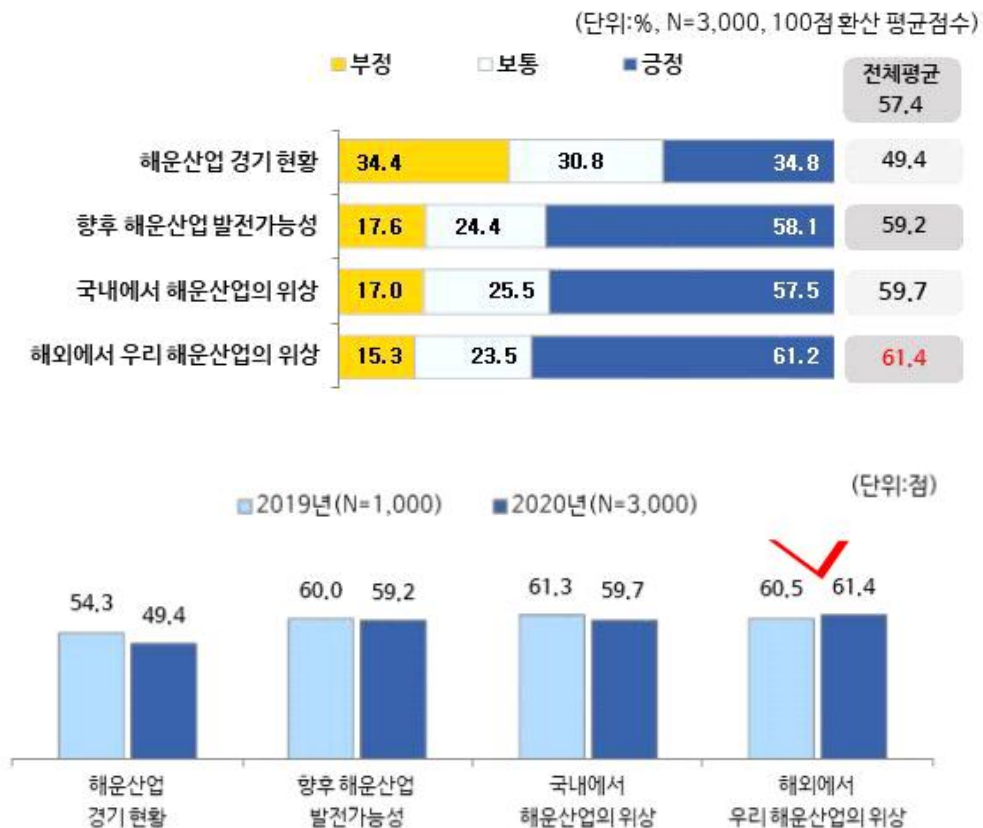
해운 분야

국민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위상이 높다고 인식

■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 평가에서 ‘해외에서 우리 해운 산업의 위상’이 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국내에서 해운 산업의 위상’은 61.3점에서 59.7점으로 하락한 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은 60.5점에서 61.4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평가 순위가 변경됨
- 항목 전체 평균은 2020년 57.4점, 2019년 59.0점으로 전년대비 1.6점 감소하여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인식은 다소 하락한 경향이 있음

그림 28.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 평가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에 대한 인식은 매년 상승

■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화물/여객 안전 기준 강화’, ‘불법 운항/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선박 안전 운항 교육 실시’, ‘대형 선박 증대’, ‘선박 위치 추적 장치 지원’ 순으로 나타남
-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 수치는 2018년 22.9%에서 3.5%p 증가하여 2019년 26.4%로, 이후 3.8%p 증가한 올해 30.2%를 기록함
- 반면, ‘화물/여객 안전 기준 강화’와 ‘불법 운항/조업에 대한 감시 강화’는 2018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각각 28.9%, 27.8%를 기록함
-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 ‘화물/여객 안전기준 강화’, ‘불법 운항/조업에 대한 감시 강화’의 3가지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보임

그림 29.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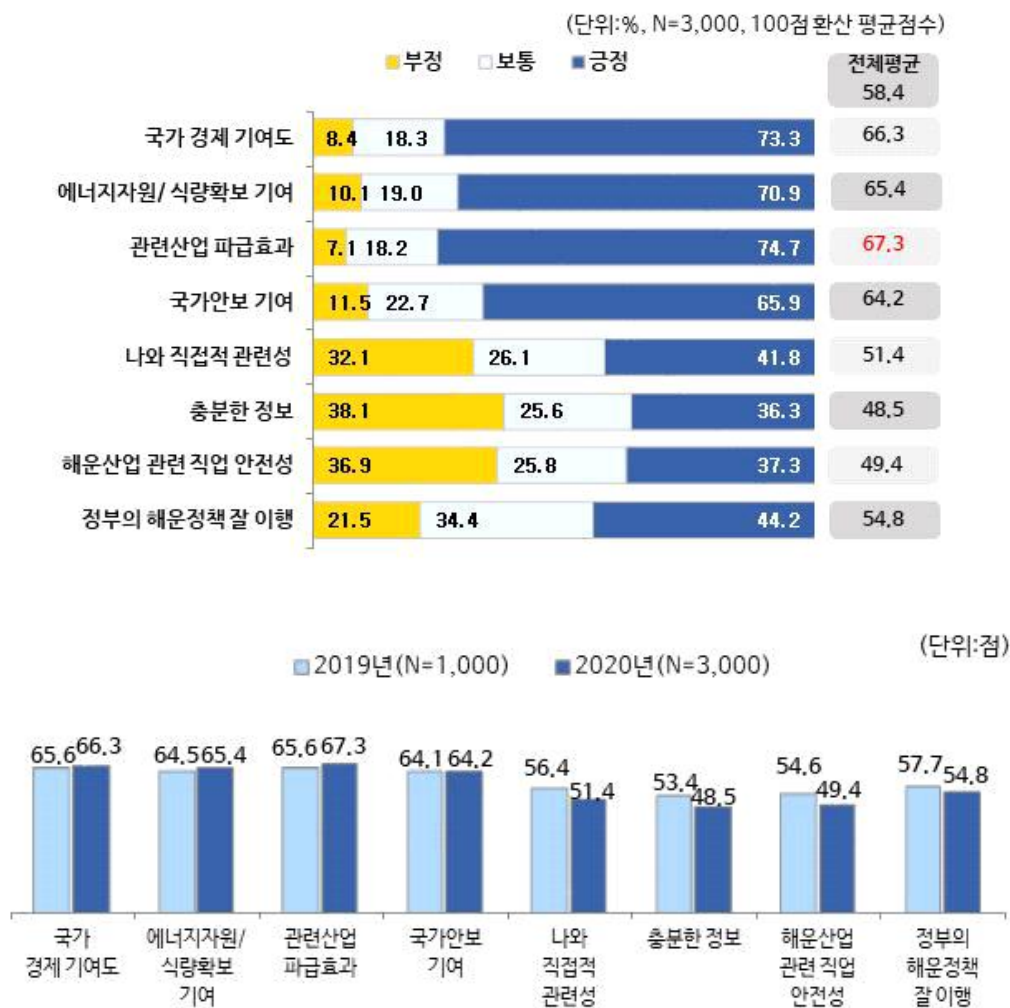
해운 분야에 대해 경제적 측면의 의견이 높게 나타나

■ 해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6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음’이 66.3점, ‘에너지자원/식량 확보 기여’가 65.4점으로 2, 3위를 보였고, ‘국가 안보 기여’, ‘정부의 해운정책 잘 이행’, ‘나와 직접적 관련성’, ‘해운 산업 관련 직업 안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련산업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74.7%, ‘국가 경제 기여도’에 대해서는 73.3%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
- 응답 항목 중 높은 점수를 보인 ‘관련산업 파급효과’와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음’은 국민이 인식하는 해운 분야에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높음을 시사함

그림 30. 해운 분야 의견



연안여객선의 안정성은 긍정, 대중교통화는 찬성

■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 이용 빈도 ‘한 번도 이용 안 함’ 58.2%로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그 다음으로, ‘1회’ 20.5%, ‘2회’ 13.5% 순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1.0%p, 3.0%p 상승함

- ‘0회’라는 응답에 20대(64.6%), 학생(70.6%),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67.5%)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연안여객선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매우 안전+대체로 안전) 응답에 35.3%, ‘보통’ 47.3%, ‘위험’(매우 위험+대체로 위험)하다는 응답이 17.4%로 ‘안전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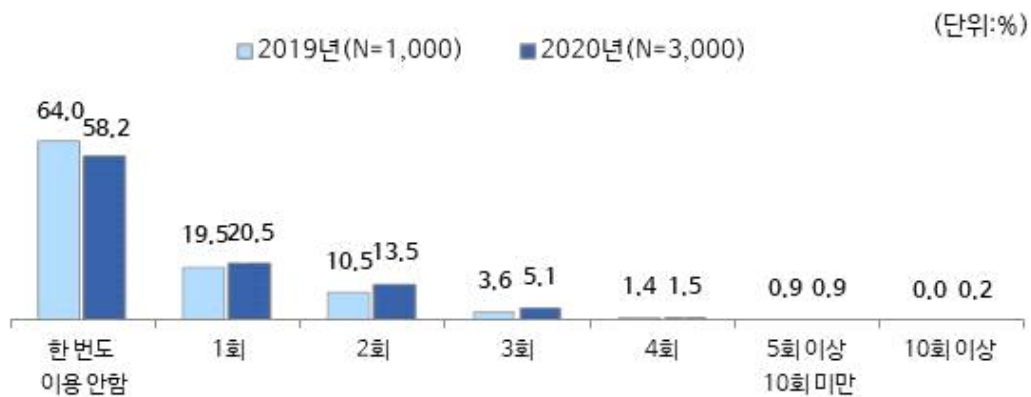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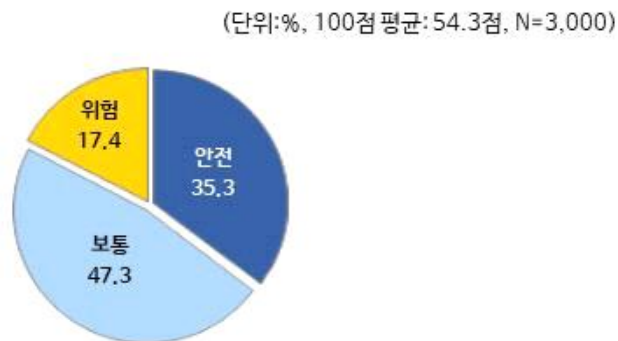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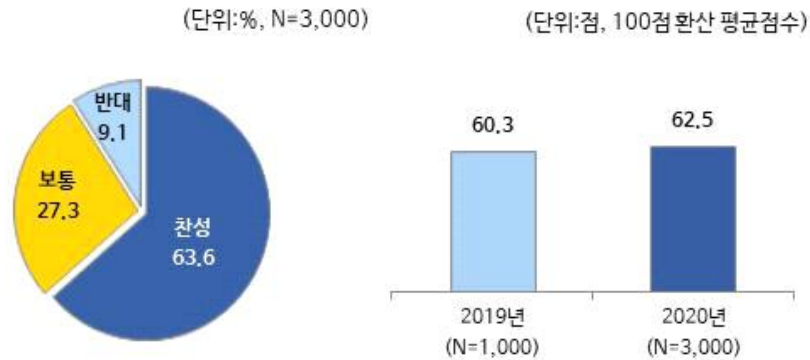
그림 32. 연안여객선의 안정성



■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응답 63.6% 차지

-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국가예산 추가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에 대해 63.6%를 차지한 반면, ‘반대’는 9.1%로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찬반 의견의 평균 점수는 2019년에 비해 2.2점 상승한 62.5점
- ‘찬성’이라는 응답은 주로 전라권(70.5%), 자영업(71.3%), 소득수준 501~700만원(68.9%), 701~1000만원(6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국가예산 추가 찬반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시급

■ 해운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살펴본 결과, ‘해운 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43.3%로 작년에 비해 8.5%p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그 다음으로 ‘해운/해사 안전’이 작년 대비 2.3%p 상승한 26.4%, ‘신 물류기술’ 14.5%, ‘선원’ 11.9% 순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해운/해사 안전 분야는 기술/장비 개발 및 인력 확보 대책 연구, 선원 분야는 선원 복지 대책 및 선원 안전대책, 신 물류기술 분야는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성 및 신선 물류, 국제물류 분야는 국제 복합운송 및 신 남방 정책 등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나타남

그림 34. 해운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그림 34-1.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단위:%, N=1,298)



그림 34-2. 선원 인력확보, 교육 및 복지 중 중요 분야

(단위:%, N=358)



그림 34-3. 해운/해사 안전 분야

(단위:%, N=792)



그림 34-4. 신 물류기술 분야

(단위:%, N=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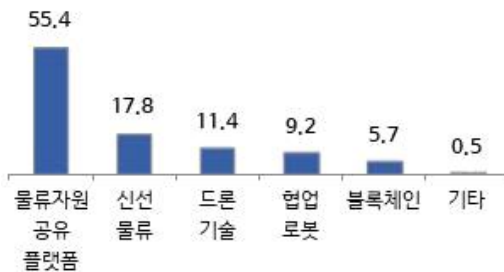


그림 34-5. 국제물류 분야

(단위:%, N=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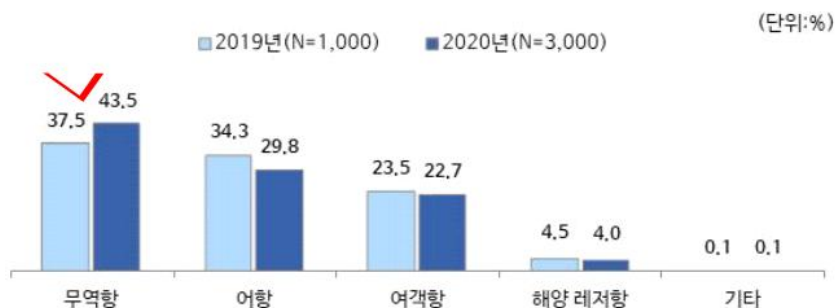
항만 분야

향후 항만이 국제무역 중심항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인식

■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는 ‘무역항’ 비중이 가장 높아

-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역항’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항’이 29.8%, ‘여객항’ 22.7%, ‘해양 레저항’ 4.0%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무역항’ 응답은 6.0%p 증가한 반면, ‘어항’ 응답은 4.5%p, ‘해양 레저항’은 0.5%p 감소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역항’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6.4%), 부산/경남/울산(50.9%), 대졸 이상(45.0%) 등에서 특히 높았고, ‘해양 레저항’이라는 응답은 20대(5.5%), 학생(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5. 항만 상기 이미지



■ 향후 항만은 국제무역 중심항과 복합기능 중심항으로 발전 기대 높아

- 향후 항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제무역 중심항’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복합기능 중심항’(29.4%), ‘해양레저/관광 중심항’(15.8%), ‘국제여객 중심항’(12.9%), ‘신선화물 중심항’(7.7%)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국제무역 중심항’과 ‘복합기능 중심항’에 대한 응답이 각각 5.7%p, 6.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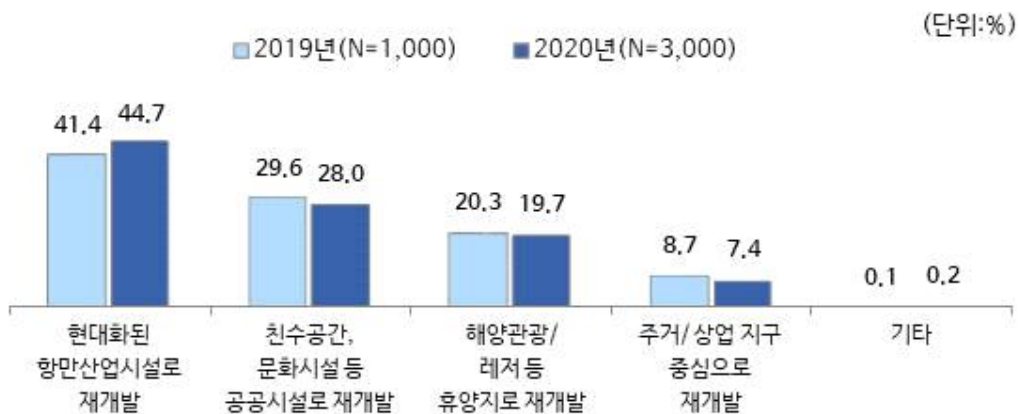
그림 36. 항만·물류분야 항목별 전반적 평가



■ 노후화된 항만을 현대화된 항만산업 시설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친수공간,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로 재개발’(28.0%), ‘해양관광/레저 등 휴양지로 재개발’(19.7%), ‘주거/상업 지구 중심으로 재개발’(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현대화된 항만산업시설로 재개발’이라는 응답에 대해 50대(49.2%), 서울(49.6%), 자영업(51.9%) 등으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37. 노후화된 항만 재개발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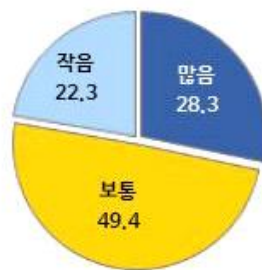
항만 통행 화물 트럭에서 항만 미세먼지 발생한다는 인식 여전

■ 국민의 28.3%는 항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

- 항만 기인 미세먼지 발생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많음’(매우 많음+많음)이 작년 대비 9.3%p 하락한 28.3%, ‘보통’ 49.4%, ‘적음’(매우 적음+적음)은 22.3%로 나타남
- ‘많음’이라는 응답은 충청권(34.2%), 학생(33.4%), 대재(30.0%)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적음’이라는 응답은 전라권(28.0%), 농/임/어업(32.9%), 초대졸(2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8. 항만에서 미세먼지 발생 정도

(단위:%, N=3,000)



■ ‘항만 통행 화물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항만 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인식된다는 응답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항만 내 장비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항만 통행 화물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응답은 각각 0.1%p, 2.4%p 증가한 반면, ‘항만 내 장비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응답은 각각 1.7%p, 1.5%p 감소함

그림 39. 항만 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단위:%)



국민의 과반수가 도시 인근 향만 조성에 찬성

■ 도시 인근 향만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긍정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대체로 긍정+매우 긍정) 54.1%, ‘보통’ 40.9%, ‘부정’(대체로 부정+매우 부정) 5.0%로 ‘긍정’에 대한 응답이 ‘부정’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를 보임
- ‘긍정’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59.1%), 전라권(61.2%), 자영업(62.8%), 소득수준 701~1000만원(60.0%) 등에서 특히 높은 반면, ‘부정’이라는 응답은 20대(7.2%), 학생(9.2%), 대재(9.7%), 소득수준 201~300만원(7.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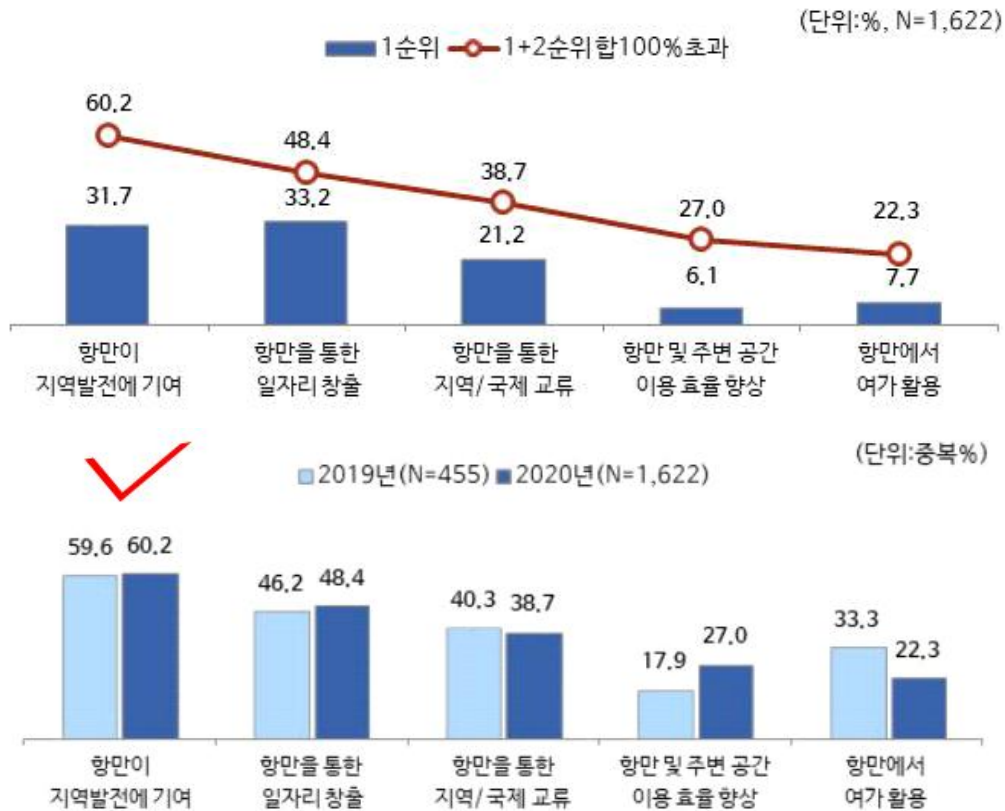
그림 40. 도시 인근에 향만 조성 평가



■ 도시 인근 향만 조성 찬성자들, 향만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

- 도시 인근에 향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n=1,622)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향만이 지역발전에 기여’ 부분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향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48.4%), ‘향만을 통한 지역/국제 교류’(38.7%), ‘향만 및 주변 공간 이용 효율 향상’(27.0%), ‘향만에서 여가 활용’(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향만이 지역발전에 기여’의 응답은 50대(62.8%), 대구/경북(63.9%), 대출 이상(62.4%)로 특히 높게 나타났고, ‘향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응답은 40대(52.0%), 부산/경남/울산(58.3%), 대재(60.6%)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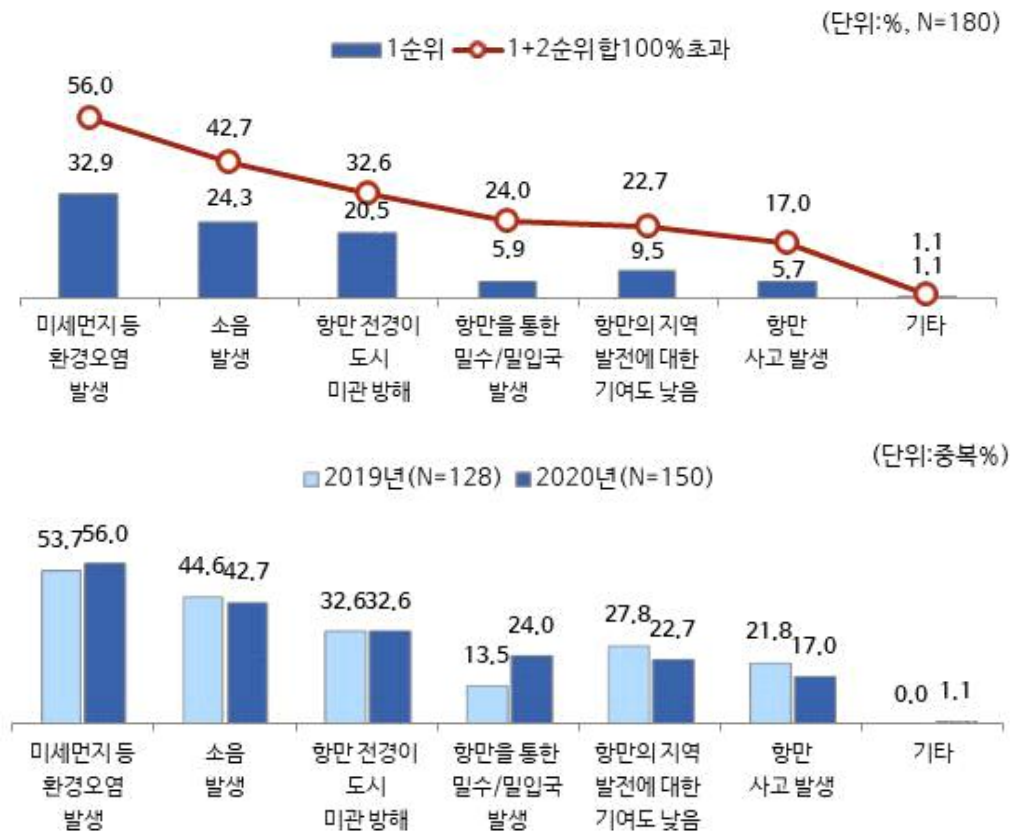
그림 41. 도시 인근 항만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이 도시 인근 항만 조성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

-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n=180)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소음 발생’(42.7%), ‘항만전경이 도시 미관 방해’(32.6%), ‘항만을 통한 밀수/밀입국 발생’(24.0%), ‘항만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낮음’(22.7%), ‘항만 사고 발생’(17.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발생’이라는 응답에서 50대(70.4%), 대구/경북(71.2%), 블루칼라(73.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소음 발생’이라는 응답에서 20대(71.6%), 학생(77.5%), 대재(7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 도시 인근 항만 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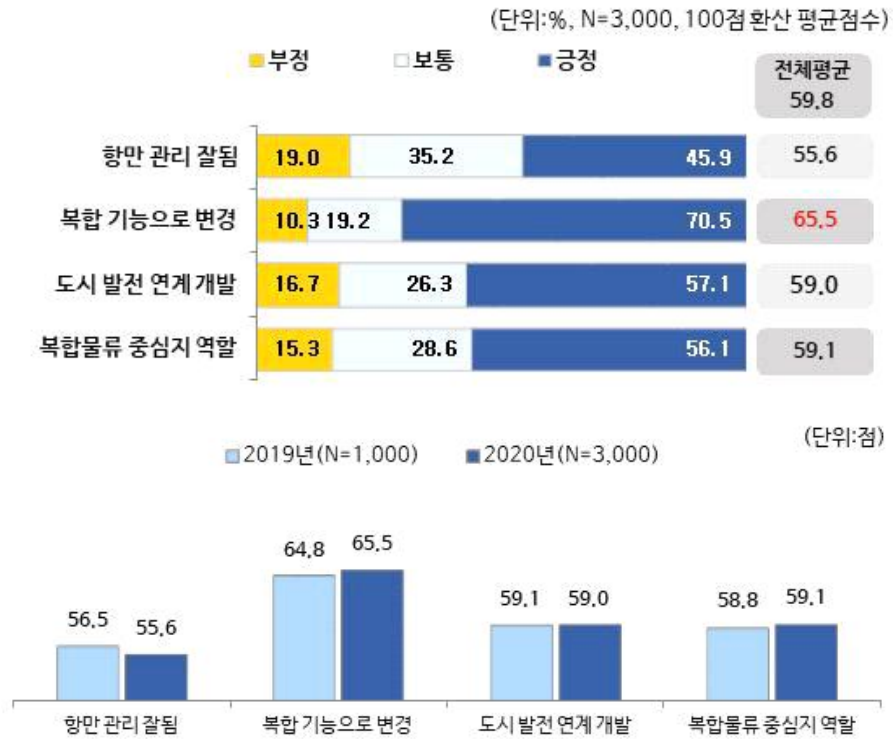


항만의 복합 기능과 도시 기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 항만·물류 분야에 대해 복합 기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 6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복합물류 중심지 역할’이 59.1점, ‘도시 발전 연계 개발’ 59.0점, ‘항만 관리 잘됨’ 55.6점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항목 전체 평균이 59.5점에서 0.3점 상승한 59.8점을 기록

그림 43. 향만 물류 분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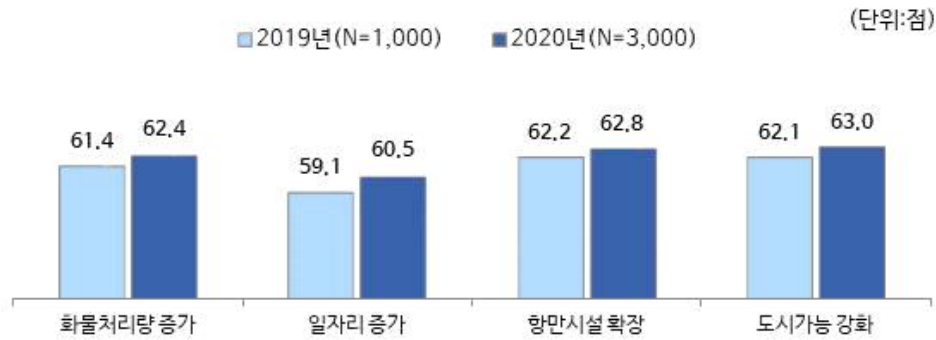


■ 향후 향만 물류 분야에 대한 의견 중 향만의 도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향만시설 확장’이 62.8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화물처리량 증가’ 62.4점, ‘일자리 증가’ 60.5점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항목 전체 평균은 61.5점에서 0.7점 상승한 62.2점을 기록

그림 44. 향후 향만 물류 분야 의견





항만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관심 높고, ‘항만의 자동화 및 지능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

■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 중복응답 기준 ‘환경오염 저감’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항만과 도시와의 상생발전’(26.6%), ‘일자리 창출’(22.1%),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21.1%), ‘수출/입 활성화’(19.9%), ‘항만 지능화 및 자동화’(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3.7%), 인천/경기(45.1%), 주부(51.5%),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47.6%)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45.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



■ ‘항만 자동화 및 지능화’ 작년 대비 18%p 상승한 26.9%로 항만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선택

- 다음으로 ‘항만안전’과 ‘친환경 항만’이 동률인 21.5%, ‘항만개발’(18.6%), ‘항만배후단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4차 산업의 기대와 전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의 자율화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항만 자동화 분야는 자동화/지능화 관련 산업 육성 및 자동화/지능화 장비, 항만안전 분야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 항만개발 분야는 항만 재개발 및 소규모 항/포구 개발, 항만 배후단지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물류 스타트업 육성, 친환경 항만 분야는 항만 수질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나타남

그림 46. 항만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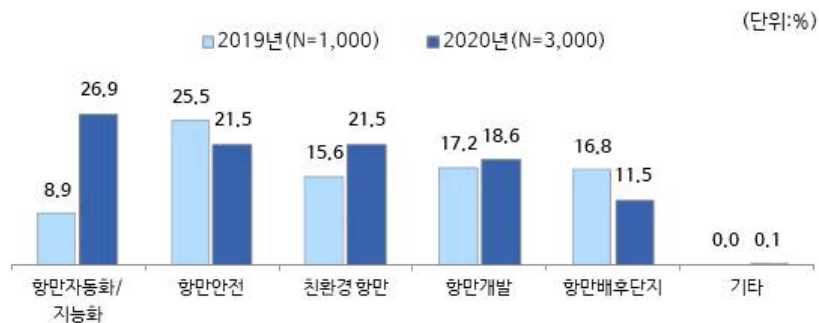


그림 46-1. 항만 자동화 분야

그림 46-2. 항만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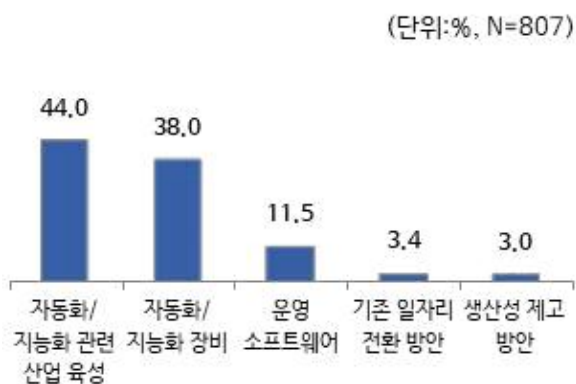


그림 46-3. 항만개발 분야

(단위:%, N=559)



그림 46-4. 항만 배후단지 분야

(단위:%, N=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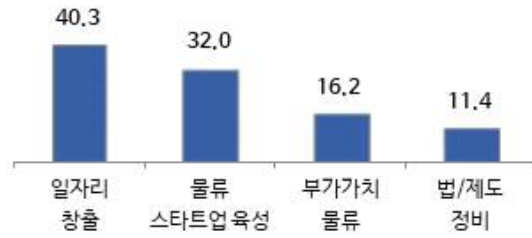


그림 46-5. 친환경 항만 분야

(단위:%, N=644)

